

# 해인(海印) 3 <최종회>

해인(海印)이란 불교 용어 중 하나로 부처의 지혜로 우주의 모든 만물을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 대해인(大海印), 해인삼매(海印三昧), 해인정(海印定)이라고도 한다. 대해인은 바다가 크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고 삼매(三昧)와 정(定)은 해인삼매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 삼매는 잡념을 버리고 한 가지에만 마음을 집중시키는 경지를 말한다. 증산도에서는 해인의통(海印醫統)이라고 하며 죽은 사람을 살리는 도장이라고 한다. 격암유록에서는 바다를 건너고 산을 옮기는 해인이라고 하였고 어디든 통하지 않는 곳이 없는 해인이라고 하였으며 그 능력을 가늠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해인이라고 하였다. 과연 해인이 무엇인지 격암유록(格菴遺錄)의 내용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 隱秘歌(은비가)

甘露如雨海印理 小弓武弓生殺權  
감로여우해인리 소궁무궁생살권  
天下一氣弓乙化 東走者死西人生  
천하일기궁을화 동주자사서인생

감로가 비처럼 내리는 것이 해인의 이치인데 감로해인이 작은 활 같아도 마귀를 쏘아 죽이는 무궁 조화가 있는 활이니 생살권(生殺權)을 가지고 있느니라. 천하의 하나님의 기운이 모여 마귀를 이기신 백십승(弓弓乙) 감로 이슬성신이 되셨느니라. 동방 한국을 떠나 달아나면 죽고 서방 사람이라도 한국으로 들어오면 사느니라.

三聖一體一人出 三辰巳出三聖合  
삼성일체일인출 삼진사출삼성합  
未復合理一人出 八萬念佛藏經中  
말복합리일인출 팔만념불장경중  
彌勒世尊海印出 미륵세존해인출

삼성일체(三聖一體) 하나님이 한 사람으로 나온 분이요, 삼진사(三辰巳)에 삼성합일(三聖合)한 분이요, 유불선(儒佛仙)이 마지막에 다시 하나로 합하는 이치로 나오는 한 사람이 그분이요.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 염불 가운데 미륵세존이 해인을 가지고 나온다고 하였다.



해인의통(海印醫統)의 감로해인(甘露海印)이 내리는 장면

白石即武弓 夜鬼發動 鬼不知  
백석즉무궁 야귀발동 귀부지  
項鎖足鎖 下獄之物 一名曰海印  
향쇄족쇄 하옥지물 일명왈해인  
善養生獲之物 惡者死獄之物  
선자생획지물 악자사옥지물  
卽三物也 三物卽一物 生死特權之物也  
즉삼물야 삼물즉일물 생사특권지물야

백석(白石)의 주인공이 곧 무궁(武弓)이요 야귀(夜鬼)가 발동해도 저들이(귀신)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목에는 칼을 씌우고 발에는 족쇄를 채워서 지옥에 던져 버리는 물질(무기)로서 일명(一名) 해인(海印)이라 하느니라. 선(善)한 자에게는 영생(永生)을 얻게 하는 영물(靈物)이요 악(惡)한 자에게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영물이나니. 삼물(三物)이 곧 화우로(火雨露) 삼풍 해인인데 삼물(三物)이 일물(一物)로 된 감로해인은 생(生)과 사(死)를 가르는 특권을 지닌 영물이나니.

## 歌辭謠(가사요)

苦海衆生精路時 蛇奪人心失道病  
고해중생정로시 사탈인심실도병  
保惠師聖海印出 上帝道德降仙人  
보혜사성해인출 상제도덕강선인  
至氣今至願爲大降 西氣東來牛鳴聲  
지기금지원위대강 서기동래우명성  
上帝雨露四月天 상제우로사월천

고해에 빠진 중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 할 때 뱀과 같은 마귀(=사탄)에게 마음을 빼앗 실도(失道)한 자들을 보혜성사(保惠師聖=정도령)가 감로해인으로 구출하시니 하나님(上帝)의 도와 덕을 가지신 신선(神仙)이시라. '하나님의 지극하신 성령의 기운을 지금 크게 내려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주문이 있듯이 서방의 기운이 동방으로 옵니다. 따라 영적 언마를 부르는 소리가 나오나니 진사(辰巳)성인을 통해 하나님이 감로해인을 내리느니라.

## 十勝歌(십승가)

八萬經內普惠大師 彌勒佛之十勝이요  
팔만경내보혜대사 미륵불지십승  
義相祖師三昧海印 鄭道令之十勝이요  
의상조사삼매해인 정도령지십승  
海外道德保惠之師 上帝再臨十勝이니  
해외도덕보혜지사 상제재림십승  
儒佛仙異言之說 未復合理十勝이라  
유불선이언지설 말복합리십승

팔만대장경에 나오는 보혜대사가 미륵불인 십승이요. 의상조사가 삼매(三昧) 중에 본 해인을 내려주는 정도령이 십승이요. 해외도덕(기독교)의 보혜사가 상제로 재림한다는 것이 십승이니 유불선이 각기 호칭을 달리해서 부르나 마지막에는 하나로 합치는 이치로 모두 똑같은 십승이나니.

## 海印歌(해인가)

쌍무지개가 나타났고, 건물 한쪽 벽면에는 하나님의 이슬성신이 강하게 뿜져 나왔다. 이것은 바로 구세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었다는 증표로 무지개와 이슬성신을 나타내 보인 것이다.

## 한반도 전쟁 불가의 약속이 지켜지고 있어

두 번째로 정도령님께서 행하신 능력은 “대한민국에서 남북전쟁의 일어나지 못하게 하겠다”는 놀라운 말씀이다. 1980년대 초반의 대한민국은 북한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전쟁의 위협을 받고 있었으며, 박정희 대통령 저격 사건 이후 정치, 군사적으로도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5.18 당시 북한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전투기 수백 대를 이륙시켜 출동 명령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도령님의 능력으로 지상과 전투기의 통신이 두절되어 남침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 후 세계공산주의 국가들이 망하면서 북한 정권 역시 경제적으로 몰락했으나, 저들은 3대 정권 세습이라는 특유의 공산 왕조 체제로 정권을 유지하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남침 위협을 하고 있으며, 원자 핵무기를 개발하여 무력 적화 통일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오늘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핵무기와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의 남침야욕은 언제 발동되어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구세주 정도령님의 한반도 전쟁 불가의 약속은 지켜지고 있으며, 영원히 이 땅에 6.25와 같은 전쟁은 일어날 수 없다. 나아가 구세주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어 머지않아 자유 평화통일의 축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한민족에게 세 번째로 약속하신 말씀은, “대한민국에 여름 장마를 지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씀이다. 격암유록에는 정도령이 출현하면 감로해인을 가지고 무궁 조화를 일으키고, 풍운조화를 마음대로 행하여 지상천국을 이루는 기초를 이룬다고 예언하고 있다. 사실 1981년 이후 일어나는 세계적인 이상 기후와 한반도에 일어나는

기상 이변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6~7월의 여름 장마가 실종되었고, 계절과 장마, 마른장마라는 일기 예보가 유행했었다.

## 태풍을 막고 매년 풍년 약속이 계속 이행돼

네 번째 약속 말씀은 “한반도로 태풍이 불어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 태풍은 태평양으로부터 1년에 수십 개씩 발생하여 불어오는데, 한반도에 직격타로 불어온 것은 1980년 이후 거의 없다. 그중에 1994년 8월 12일 불어온 13호 태풍 ‘더그’는 처음 A급 슈퍼태풍으로 올라오다가 한반도 상륙할 때는 B급으로 약해져서 많은 비를 내리서 전국적인 가뭄을 일거에 해소하여 효자 태풍이라 했다. 특히 1994년의 극심한 가뭄이 있었던 것은, 그 해 1월 10일 기독교인들의 모함으로 정도령이 구속되면서 봄부터 여름에 이르기까지 최악의 가뭄 현상이 일어났다. 그해 봄부터 농촌에서는 식수가 고갈되어 정부에서 급수차가 지원되기도 했다. 여의도 광장에서는 미신으로 여기는 기우제까지 지냈다. 정도령님이 수감되어 있던 서울구치소에서는 고위 간부가 찾아와 정도령님께 비를 내리게 해 달라고 여러 번 부탁했다고 한다. 그래서 한민족을 사랑하시는 구세주 하나님의 배려에 의해 태풍 ‘더그’를 끌고 와서 일시에 가뭄을 해소하고, 그 해도 풍년 농사에 지장이 없었다. 그 후로도 태풍이 몇 번 있었으나 모두 내륙지방에 큰 피해를 준 것은 없다. 당시 KBS 방송국의 일기 예보를 보면 “1994년 8월 2일 발생하여 같은 달 12일에 소멸한 13호 태풍. 1994년의 기록적인 폭염을 종결시킨 대표적인 효자 태풍으로 아주 유명하지만, 전성기에는 최저기압 925hPa에 최대 1분간 지속 풍속이 시속 260km에 달했던 ‘슈퍼태풍’이었다. 태풍 더그는 1994년 발생했던 유일한 카테고리 5등급의 슈퍼태풍이기도 하였다.”는 보도를 보이셔도 알 수 있다.

다섯 번째 공약이자 대한민국에 크나큰 축복은 “대한민국에 계속 풍년들게 하겠다” 하는 말씀이다.\*

출처: 유튜브 '진지아롱TV'

秦皇漢武求下 不老草不死藥 어데잇소  
진황한무구하 불로초불사약  
虹霓七色雲霧中에 甘露如雨海印이라  
홍에칠색운무중 감로여우해인  
火雨露三豐海印이니 極樂人券發行下니  
화雨露三豐海印이니 極樂人券發行下니  
화우로삼풍해인 극락입권발행하  
化字化字化字印에 無所不能海印이라  
화자화자화자인 무소불능해인

진시황과 한무제가 구하던 불로초와 불사약이 어디 있소? 무지개 같은 일곱 빛깔의 구름 안개 속에 비처럼 내리는 감로 해인이 불로초 불사약이라. 화우로(火雨露) 삼풍이 감로 해인이니 정도령이 발행한 극락 입장권이라. 천변만화(千變萬化) 무궁조화(無窮造化)의 해인이요 무소불능(無所不能)의 해인이라.

## 【결론】

해인(海印)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해인(海印)에 정확하게 논해 놓았다. 진시황제와 한 무제가 찾던 불로초와 불사약이고 단 이슬같이, 비같이 내리는 감로여우(甘露如雨)가 해인이며, 화우로삼풍해인(火雨露三豐海印)이고, 사람을 하나님으로 거듭나게 해주는 해인이며, 무소불능 즉 통하지 않는 곳이 없는 것이 해인이다.

해인(海印)은 온갖 병마와 노화의 주범인 마귀를 죽이는 무기이며 인간의 온갖 질병을 치유하는 만병통치약이며 생노병사를 타파하는 불노초와 불사약이 바로

해인이다. 그 해인은 미륵부처님이 들고 나오시는 명약이며 그 명약인 해인을 임의(任意)로 용사(用使)하시는 분이 진인(眞人)인 정도령(正道令)이라고 하였다.

해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마귀를 죽이기 위해 개발한 무기이다. 해인이 바로 감로해인이며 삼풍해인이며 성경의 이슬 성신이다. 바로 사람의 죄를 소멸하고 하나님으로 거듭나게 하는 영생의 명약이다.

6,000년 전 마귀에게 패하여 삼위일체가 깨어졌던 하나님은 6,000년 만에 삼위일체를 회복하시고 마귀를 죽이는 감로해인을 들고 나오셔서 죽어가는 인생들을 한 생명이라도 더 살려보고자 고군분투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해인(海印)은 매일(每)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나라는 것을 이끌고 나와서 무릎 꿇어서 매일 생명을 먹어야 한다는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감로해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매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전에 나를 이끌고 나와야 한다. 그레야 이루어진다. 그레야 매일 매일 조금씩 변화가 된다. 그레야 중생(重生)이 이루어진다. 그 구원의 방주가 바로 승리제단이다. 그것을 확인해 보시라는 것이다.

오십시오 승리제단으로 해인의통(海印醫統)의 감로해인(甘露海印)이 항상 내리고 있습니다.\*

##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 성경 속의 진짜 하나님 말씀 2탄

#### The True Word of God in the Bible - Part 2

예수는 자신을 믿으면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Jesus lied and said that if people believe in him, they will not die and will live forever.

- 성경속의 예수의 거짓말 :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 요한복음 11:25  
▶ Jesus' lie in the Bible: Whoever believes in me will live even if he dies, and whoever lives and believes in me will never die. - John 11:25
- 성경속의 예수의 거짓말 :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 요한복음 8:51  
▶ Jesus' lie in the Bible: Truly I tell you, if anyone keeps my word, he will never see death. - John 8:51
- 성경속의 예수의 거짓말 :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 요한복음 6:49  
▶ Jesus' lie in the Bible: Your ancestors ate Manna for 40 years in the wilderness and they died, but whoever eats my flesh and blood will never die - John 6:49
- 성경속의 예수의 거짓말 :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 요한복음 3:36  
▶ Jesus' lie in the Bible: He who believes in the Son has eternal life, but whoever disobeys the Son will not see eternal life, and the wrath of God remains on him - John 3:36
- 성경속의 예수의 거짓말 : 베드로가 “주님,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가 대답하기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 있기를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나?”라고 하였다. - 요한복음 21:21  
▶ Jesus' lie in the Bible: Peter asked, “Lord, what about him(John)?”. Jesus answered, “If I want him to remain alive until I return, what is that to you?” - John 21:21\*

by Alice